

대선 후보들 “한표라도 더”… 마지막 유세 총력전

서울·수도권 등서 선거운동 피날레
李 “경제상황 점검…개혁보다 민생”
金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만 도와줘”
이준석 “계엄·부정선거서 자유로워”

21대 대선을 하루 앞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은 마지막까지 한 표라도 더 얻겠다는 각오로 막판 총력전을 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유세를 시작으로 경기 하남과 성남, 광명, 서울 강서구를 거쳐 여의도공원에서 선거 운동을 마무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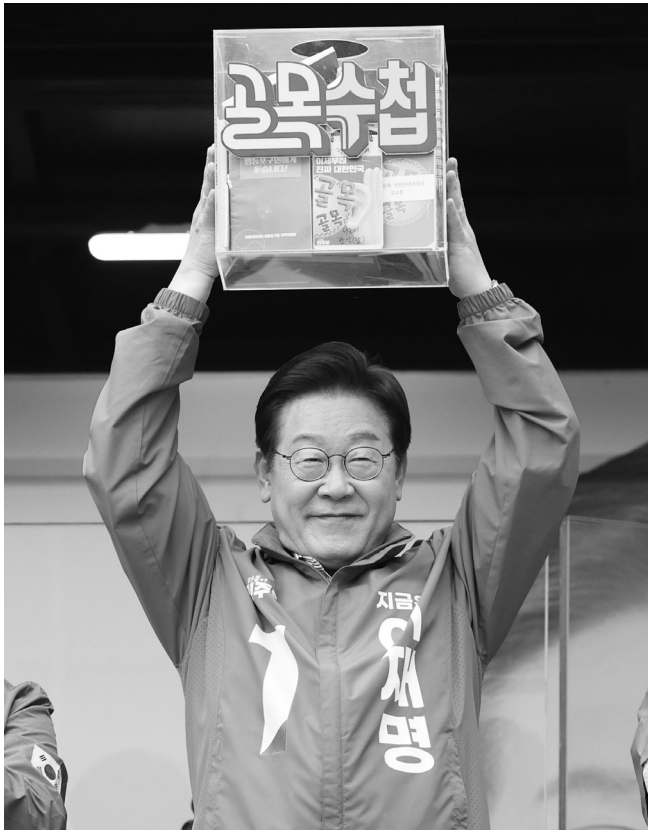
과거 대선마다 전통적으로 최대 격전지였던 수도권에 막판 총력을 기울였다.

이 후보는 경기도 성남시 성남주민교회에서 가진 기자회견 후 “대통령 취임 후 무엇을 첫 번째 업무로 지시할 것인지 생각한 것이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생 문제”라며 “경제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사법 개혁과 관련한 구상을 묻는 말에는 “개혁해야 할 과제는 각 부문에 많이 산적해 있지만 지금은 개혁보다 급한 것이 민생 회복, 경제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스트롱맨’과의 관계는 어떻게 예상하나’라는 물음에는 “그들이 ‘스트롱맨’이라고 불리는 것은 자국 중심의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는 리더십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보 위기든, 경제 위기든 국민의 이익을 가장 중심에 두는 실용적인 협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경기도 스타필드 하남점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추미애 골목골목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으로부터 전국 곳곳의 민심을 담은 골목수첩을 전달받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과 정책들을 구상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라며 “우리가 특별히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제주에서 출발해 부산·대구·대전을 거쳐 서울(광화문)에서 방점을 찍는 ‘경부 상행선’ 경로로 유세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 후보는 부산역 유세에 앞서 긴급 입장문 발표를 통해 “있어서는 안 될 비상계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저와

국민의힘은 깊이 반성하며 국민의 뜻과 염원을 받들어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에 나서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당내 민주주의, 당과 대통령의 수평적 관계, 대통령의 당무 불개입, 당과 정부의 건강한 관계 등 과감한 당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특히 이재명 후보를 겨냥, “국민들께서 계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제주시 일도일동 동문로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대한민국이 자랑스롭습니다’ 문구가 적힌 흰색 티셔츠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실 때 국회 독재를 일삼고 사법 리스크에 떨고 있던 이 후보는 감옥에 갈 처지에서 기자회견생애 이제는 모든 권력을 장악하며 히틀러식 총통 독재를 펼치려 한다”고 비난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성사시키지 못해 송구하다”며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이재명 후보만 도와주게 된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단일화 노력을 하겠다. 김문수를 찍으면

김문수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의미 있는 득표율을 일궈내겠다는 목표로 유권자 표심에 마지막까지 호소했다.

이 후보는 경기 시흥시 한국공학대를 찾은 자리에서 “미래를 위한 보수 진영의 초승달이 차오른다는 심정으로, 시드머니로 이제 이준석에 대해 선명한 투자를 해야 한다”며 “계엄과 태극기 부대, 부정선거에서 자유로운 저 이준석만이 유일한 범보수 진영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법을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게 마음대로 바꿔서 정치하겠다는 사람이라면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독재자가 될 운명을 가지고 선거에 뛰어들고 있다. 그래서 강력하게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날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자신에게 결단을 촉구한 데 대해선 “국민의힘이 오히려 졸인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당의 메신저 또한 혼선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는 김재원 비서실장이 ‘이준석에게 던지는 표는 휴지 조각’이라고 대놓고 도발했다”며 “그런 사람이 주류인 당에서 도대체 누구에게 연대니, 단일화니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나”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는 경북 경산 영남대에 이어 대구로 이동해 대구 수성못 일대에서 공식 선거운동의 마지막 유세를 펼쳤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는 이날 해화역과 구의역과 강남역 등을 거쳐 보신각에서 마무리 유세를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선관위원장 “투표로 화합… 소중한 한표 행사를” ‘광주·전남 최다선’ 박지원 의원,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대국민담화 “선거결과 존중·승복”
“정확하고 빈틈 없이 개표 할 것”

노태약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투표로 화합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면서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선거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선거”라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치러져 후보자 간 정책 경쟁이나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 시간이 다소 부족한 것은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오늘 하루라도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한 번 더 확인해 내일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이어 “국민의 마음을 얻고자 치열한 경쟁을 펼친 정당·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에 대해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서도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선관위는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선거 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이번 선거를 준비했다”며 지난해 총선 때 도입한 사전투표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 투표지 수검표제 등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전투표소별로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집계해 공개하고, 각계각층



노태약(오른쪽)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경기 안양 덕천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소를 찾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 인사들로 구성된 공정선거감관단이 사전투표소, 선거일투표소, 개표소 등 중요한 선거 관리 현장을 직접 참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표가 마무리되면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정확하고 빈틈없이 개표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위원장은 “선거는 많은 인력과 시설, 그리고 충분한 예산이 필요한 전국적 행사”라면서 “이번 선거는 6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모든 준비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도 범정부 차원의 도움으로 큰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었다”며 “특히 투·개표 현장 실무를 맡아주시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헌신과 봉사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인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골목골목선대위장 맡아 마라톤 유세
전국 최고 사전투표율 기록 등 기여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골목골목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박지원(82·해남완도진도) 의원의 목소리가 대선 기간 호남 곳곳에 울려 퍼졌다.

박 의원은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과 지역 선대위원장을 겸하며 본투표 전까지 ‘마라톤 유세’를 벌여 주목을 받았다.

박 의원은 2일까지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을 누비며 총 50회가 넘는 유세와 104회의 경쟁투어를 소화했다. 누적 이동거리만 1만km가 넘는다. 전통시장과 주택가, 골목마다 유권자와 악수하며 지지를 호소했고 중앙당 일정이 있을 땐 서울로 향했다가도 곧장 호남으로 돌아와 현장을 누비는 ‘현장 파르타임’도 마다하지 않았다.

박 의원의 현장 활동은 전국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전남 지역의 분위기에도 무관하지 않다.

박 의원은 “높은 사전투표율은 내란을 기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역민의 분노가 투표로 표출된 것”이라며 “이에 안심하지 않고 본투표까지 총력전을 펼쳐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을 90% 이상 끌어올리도록 하겠다”고 겸손을 보였다.

박 의원의 이런 메시지는 그의 정치철학에서 비롯된다.

최근 전남일보와의 간담회에서 그는



지난달 26일 전남 해남을 찾은 박지원 의원과 신정훈 의원이 포즈를 취해보고 있다.

독자 제공

“중앙당에 몰려 있는 지역구 의원들을 모두 지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 광주·전남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SNS에 ‘지역구 의원들이 내려오지 않으면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했고 그 직후 다수 의원들이 지역으로 복귀했다.

언행 신중론도 빠지지 않았다.

그는 “이준석·이낙연·유시민 사례만 봐도, 선거막판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다”며 “지금은 말과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 실제 민주당 선대위도 본투표를 사를 앞두고

전 구성원에게 ‘언행주의령’을 내렸다.

윤여준 상임선대위원장은 “후보부터 평당원까지 무거운 민심을 받들고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여러분,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골목마다 이 한마디를 외치며 유세를 이어가는 그의 발걸음은 단순한 지원 유세를 넘어, 민주당의 핵심 현장 전략으로 작동하고 있다. 80대 최다선 정치인은 오늘도 외친다.

“투표해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광주·전남의 자존심을 반드시 지켜냅시다!” 정성현 기자